

치누아 아체베의 소설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의 오콩코는 비극적 주인공인가?*

정 철 성
(전주대학교)

Juhng, Chullung, "Is Okonkwo a Tragic Hero in Chinua Achebe's *Things Fall Apart*?"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1 (2019): 167-197. *Things Fall Apar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African novels since its publication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It tells the story of the village of Umuofia from *within*, retrieving the lost voice of the colonized. Some critics have praised the book's endeavor to search for lost roots and identity. I think the romantic idealization that all was well before white people came to the land is of little use for the post-independence era. It is not very helpful to try to purify Umuofia completely from Western influences, either. Okonko tried to be one of the greatest in his clan, only to fall. He was as much a tragic hero as Macbeth was, for they share similar goals and temperament. Okonko's case, however, has its peculiarity. He did everything to preserve what was traditional in his culture, but then eventually killed himself, going against his cultural code. This paradoxical choice makes him an example of a post-colonial tragic hero. (Jeonju University)

Key Words: African novel, voice, idealization, tragic hero, post-colonial

I

접두사 '포스트'를 붙여 만든 비평 용어들을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 사례마다 서로 다른 해석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 이 논문은 전주대학교 2018년 연구학기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물임.

(post-modernism)과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와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이다. 다른 전문 용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스트라는 의미소의 뜻이 중의적이며 한국어 사전에서 동일한 중의성을 가진 단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조건이 일괄 선택을 방해했다. 옥스포드영어사전(OED)에 의하면 포스트(post-)는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뒤 또는 다음과 관련이 있음을 가리킨다. 어디부터 앞으로 뒤인가를 따지는 문제, 다시 말해 ‘포스트’의 발생 시기를 확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순서 자체는 분명하다. 그러나 앞선 것과 나중 것 사이의 관계를 살피면서 연계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단절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졌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에는 저마다 모더니즘을 거부, 차용, 변용한 과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뜻을 포기한 채 ‘포스트’라는 소리를 남겨두고, 후기구조주의의 경우에는 연속과 확장의 흔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구조주의에 포함시켜 ‘후기’를 붙여 번역하는 관행이 대체로 용인된다. 물론 이러한 번역에 반대하거나 심지어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후기구조주의라는 규정 자체를 문제 삼는 주장도 있다. 한편 탈식민주의의 경우에는 식민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탈식민주의라고 옮기는 것이 훨씬 명료하다. 그러나 탈식민주의라는 용어가 비교적 그 뜻이 자명하고 목표가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일 뿐이다. 실천 현장의 탈식민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후기구조주의에 뒤지지 않는 복잡성을 노정한다.

탈식민주의의 시각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해석을 전복시킨 예로 종종 언급되는 작품 가운데 셰익스피어의 『태풍』(*The Tempest*)이 있다. 프로스페로(Prospero)와 칼리반(Caliban)의 관계를 재설정하면 이 희곡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힌다. 미국 출신의 인류학자 보헤넨(Bohannan)은 셰익스피어의 또 다른 희곡 『햄릿』(*Hamlet*)이 아프리카 한 부족의 사회적 의미망 속에서 어떻게 포착되는가를 보여준 선구적인 기록을 남겼다. 서아프리카에서 현장조사를 하던 그녀는 팀(Tiv) 부족의 청중을 위하여 『햄릿』을 구술하다가 공감의 토대가 사라지는 곤경에 부딪힌다. 유령(ghost)라는 낱말을 그들의 어휘 속에서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유령’은 돌아가신 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라고 나는 쏘아붙였다.

“A ‘ghost’ is the dead man’s shadow.”

But again they objected. “Dead men cast no shadows.”

“They do in my country,” I snapped. (Bohannan 30)

견고, 움직이고, 아무에게나 입을 여는 것은 아니지만 말을 하는 유령이 없다면 『햄릿』은 1막 1장에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부족민의 눈으로 보면 햄릿은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문화적 조건이 해석을 결정하는 예로 언급되는 그녀의 경험담은 보편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당연시되는 최근의 관행 속에서도 여전히 신선한 충격을 제공한다.

보해년의 당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셰익스피어가 계속 하나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아직 남아있었다. 연장자인 노인, 아마도 존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은 문화적 차이가 서구식 해석의 전달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도 말을 멈추지 않는다. 시무룩한 표정의 보해년에게 노인은 이런 충고를 덧붙인다. “사람은 어디를 가나 다 똑같아.(But people are the same everywhere.)”(33) 보해년과 노인은 서로에 대한, 다소 심각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또 설득하는 결말에 도달한다. 보해년은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을 고집하지 않았고, 노인은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여기서 오해와 이해가 항상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라고 부르는 과정의 본질이라는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을 발휘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탈식민주의를 모색한 작품 가운데 걸작의 하나로 꼽히는 치누아 아체베의 소설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에서 주인공 오콩코의 자살이 남긴 의문점들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의 서사를 추동하는 탈식민주의가 어떤 종류인가를 살펴본 다음, 질문을 둘로 나누어, 오콩코가 과연 소설의 주인공인가 그리고 그의 죽음이 비극적인가라는 물음에 순서대로 대답을 시도해 볼 것이다.

II

데니스 월더(Dennis Walder)는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를 소개하면서 서벌턴(subaltern)의 목소리라는 개념을 빌린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하겠다는 의욕은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식민 지배를 당한 자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역사를 회복하기. 더욱더 나아가, 그들의 역사를 회복하여 정체성을 되찾기([B]y telling the story of the colonized, to retrieve their history. And more than that: by retrieving their history to regain an identity.)”(Walder 7)를 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분식회계처럼 사태를 악화시킨다. 표면상 그럴듯한 논리로 치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과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 없는 것과 같다. 식민 모국 출신 지배자들과 그들의 후예가 만들어낸 허위의식을 물리치겠다는 애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회복에 매달리는 저항은 과녁이 없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무의미하다. 지금은 독립한 과거의 식민지와 식민지를 잃어버린 과거의 식민 모국에서 각각 바라보는 과거의 회복이라는 시선 사이에는 접점이 없다. 더욱 불행한 사실은 후자의 시선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가 전자의 시선에서는 심리적 복수의 욕구가 읽힌다는 점이다.

월더가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확실한 정체성(the identity)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an identity)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정체성은, 특히 미래의 정체성은, ‘미리’ 설정할 수 없다. 고전적인 어투를 빌어 말하면, 정체성은 선형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낱알이 새롭게 형성되는 상태의 연속이며, 정체성의 부재라고 지탄을 받는 상태 역시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부재라는 표현이 별다른 의심 없이 등장하는 것은 과장 또는 인식의 결핍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사이드(Said)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유럽이 오리엔트를 새롭게 발견하는 가운데 “근대와 유럽이라는 특수한 조건(a peculiar condition of being modern and European)”이 발생했고 “두 범주 가운데 어느 것도 이전의 낯선 문화 및 시간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적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neither of those two categories has true meaning without being related to an

earlier alien culture and time)”(132)고 분석한다. ‘근대 유럽’의 형성과정을 꿰뚫어 보는 그의 통찰은 유럽이 자신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문화를, 예컨대 고대 이집트와 고대 인도를, 만나면서 역설적으로 가장 근대적인 유럽으로 변신하였음을 갈파한다. 이것을 식민화에 대입하면, 유럽이 식민지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를 구축해 나아간 과정 자체가 유럽을 유럽으로 만든 과정이라는 말이 된다. 식민 모국 더하기 식민지라는 덧셈의 결과가 유럽이 아니었다. 유럽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휩쓸며 진행된 식민화의 과정 자체가 유럽을 유럽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서구는,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로 하는 유럽은, 식민지와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근대 유럽은 이전의 유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정치적 올바름을 실천하려는 유럽인이 있어 만의 하나 그가 식민화 이전 상태의 복원을 시도하더라도 결국 헛수고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서구는 식민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는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식민지가 되었고 독립국가가 되었다. 식민과 독립 이후의 아프리카가 식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식민지 이전의 상태에 대한 허약한 낭만적 이상화는 같은 맥락에서 의미 없는 시도이다. 오히려 식민화에 근대화화의 이미지를 덧씌워 식민 지배를 미화할 빌미를 제공한다. 물론 해방된 식민지의 부역자가 입에 발린 화해와 용서를 말하더라도 과거지사는 그냥 묻히지 않는다. 식민지의 유령은 아직도 배회하고 있다. 식민화가 남긴 문화적, 문학적 왜곡이 아직도 엄연히 남아 가공할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직시하면, 식민에 대한 저항이 식민 이전이 아니라 식민 이후, 다시 말해 탈식민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바바(Bhabha)가 “틈새의 혼종성(in-between hybridity)”(14)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식민지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간격의 출현 속에서, 다시 말해 차이의 영역이 겹치고 움직이는 가운데, 나라 세움, 공동체 이해, 또는 문화적 가치 등등의 집단적 경험이 난관을 헤치고 나아간다. 어떻게 ‘틈새에서’, (대개 인종, 계급, 성차 등으로 말해지는) 차이나는 ‘부분들’의 과잉, 총합 속에서, 주체들이 형성되는가?

It is in the emergence of the interstices--the overlap and displacement of domains of difference--that the intersubjective and collective experience of *nationness*, community interest, or cultural value are negotiated. How are subjects formed 'in-between', or in excess of, the sum of the 'parts' of difference (usually intoned as race/ class/ gender, etc.) (2)

이런 맥락에서 성, 계급, 민족의 문제를 함께 언급한 이글턴(Eagleton)의 제안은 문제와 해결의 복잡한 얽힘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의 정치학은, 계급투쟁이나 민족주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마침내 철폐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 형이상학적 범주에 필연적으로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운동은 고통스럽고, 궁극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이중의 시각을 요구할 것이다. 적대자들이 이미 지도를 그려놓은 지형 위에서 싸우면서 동시에 것처럼 세속적인 전략 속에서 우리가 아직 알맞은 이름을 찾아내지도 못한 존재와 정체성의 스타일을 미리 그려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Sexual politics, like class or nationalist struggle, will thus necessarily be caught up in the very metaphysical categories it hopes finally to abolish; and any such movement will demand a difficult, perhaps ultimately impossible double optic, at once fighting on a terrain already mapped out by its antagonists and seeking even now to prefigure within that mundane strategy styles of being and identity for which we have as yet no proper names. (24)

다시 데니스 월더의 주장으로 돌아가 보자. 동일한 작품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에 대한 평가이지만 “잃어버린 뿌리 찾기,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와 문화를 재창조함으로써 정체성을 재창조하기(a search for lost roots, and a recreation of identity out of the recreation of a specific place and culture)”(96)와 “자기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들 사이에 다리를 놓기 (bridging the gaps between his own and other cultures)”(97)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후자는 회귀의 유혹에서 벗어나 있다. 이것은 “다중 정체성과 변동 정체성, 그리고 둘 사이의 긴장 (the multiple and shifting identities, and the tensions between them)”

(Innes 208)이 아체베를 작가로 만들고 있다는 진단과 유사하며, 보다 정확하게 작가와 작품의 정체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체성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의식하는가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남들은 나를 누구라고 의식하는가에 대한 관심의 문제이다. 그래서 남들이 누구라고 나를 의식하기를 바라는가와 남들이 실제로 나를 누구라고 의식하는가 (또는 남들의 의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차이가 나의 정체성을 불안하게 한다. 예이츠가 노래한 ‘외투’처럼 정체성은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알몸으로 걸으면/ 할 일이 더 많은 법이므로(For there’s more enterprise/ In walking naked)”(Yeats 142) 나체가 더 정체성을 확실하게 저장하는 그릇인가? 고대의 신화를 빌려 수를 놓은 예이츠의 외투는, 남들이 제멋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예이츠가 극도로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이츠 시의 일부이고 아일랜드다움의 한 부분이다. 비유와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면, 정체성은 외투처럼, 의복처럼, 본래의 내가 아니지만, 나체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취급되는 사회에서 나의 일부로 간주되는 문화적 요소이다.

III

탈식민의 주제를 다루는 아프리카 소설에 대한 지나친 찬사는 의도를 배반하고 독이 된다. 아체베 소설의 미덕으로 언급되는 것에는 간결한 묘사, 구전 계승의 전통, 민담과 속담의 적절한 사용,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답게 그려낸 정확성 등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승배는 맹목에 가깝다.

백인들이 오기 전까지 우무오피아 공동체는 그들의 사회적, 종교적 문제들에 해답을 제공하는 적절한 법률과 도덕의 기준을 갖춘 안정적인 사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그것들의 권위는 결코 의심받지 않는다. 누군가 감히 도전이라도 하면 오콩코와 같은 전사와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무오피아가 ‘용감한 사람들의 땅 우무오피아’라고 알려지게 된 연유이다.

Until the coming of the white man, Umuofia community appears to be a

stable society with adequate legal and moral codes which provide answers to their social and religious problems..... Their authority is never impugned; if anyone dares to challenge it, he is fought by warriors like Okonkwo. This is how Umuofia came to be known as *Umuofia obodo dike*. (Ogbaa 131-2)

아체베가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에서 보여주듯이, 쌍둥이 유기, ‘오수’ 차별 제도, 인간 희생, 우발적 살인자의 추방 등은 오비에리카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내부로부터 이미 의문시되고 있었다. 아프리카는 변화를 위하여 식민자들과 기독교라는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As Achebe demonstrates in *Things Fall Apart*, such practices as the throwing away of twins, the osu caste system, human sacrifice and exiling a person for inadvertent murder were already being questioned from within by Obierika and others. Africa did not need colonialists and the Christian religion to change. (Ojaide 46-7)

지나치게 단순한 긍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진단은 한마디로 허구다. 오비에리카는 부족의 전통 가운데 어떤 것들이 모순임을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모순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콩코의 큰아들 은오예(Nwoye)는 쌍둥이 살해에 대한 의심과 함께 인간 희생에 직접 가담한 아버지 에 대한 반감 속에서 기독교도가 되었다. 은오예가 발견한 우무오피아 체제의 모순은 “쌍둥이들은 왜 숲속에 버려지는가 그리고 이케메푸나가 왜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라는 두 개의 질문(the question of twins crying in the bush and the question of Ikemefuna who was killed)”(Achebe 147)으로 압축된다. 쌍둥이 유기의 습속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미신으로 꼽았던 것이다. 이러한 습속은 그것이 체제 성립의 한 조건으로 인식되는 한 계속 유지된다. 존귀한 대지의 여신이 쌍둥이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계시 앞에서 왜라는 질문은 신성모독이다. 이것을 저지를 만큼 도전적인 구성원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아프리카 전체의 변화를 잠시 잊고 영역을 최소화하여 우무오피아 아홉 마을의 존속을 고려하더라도 “식민자들과 기독교라는 종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모순이 축적된 것인

지 아니면 외부와 조우하는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구성원들이 우무오피아의 신화체계에 더 이상 옳듯이 헌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위의 두 진단은 필요한 ‘무엇’이 식민자들과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점에서만 부분적인 정당성을 유지한다.

은오예는 외부의 힘을 빌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소설의 시간 속에서 은오예의 선택은 도피에 가깝다. 은오예를 제외하면 ‘내부에서’ 의문을 제기한 우무오피아의 주민은 오비에리카가 유일하다. 오비에리카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법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오비에리카가 말했다. “다른 여러 부족에서는 타이틀을 가진 사내가 야자나무에 올라가도 괜찮다네. 우리는 큰 나무에는 올라가면 안 되지만 땅에 서 있는 작은 나무에서는 수액을 뽑아도 된다고 하네. 마치 디마라가나가, 개가 자기에게 금기이니까 개고기를 썰는데 자기 칼을 빌려주지 않으면서, 먹을 때는 자기 이빨을 내미는 것과 같거든.”

“I don't know how we got that law,” said Obierika. “In many other clans a man of title is not forbidden to climb the palm tree. Here we say he cannot climb the tall tree but he can tap the short ones standing on the ground. It is like Dimaragana, who would not lend his knife for cutting up dogmeat because the dog was taboo to him, but offered to use his teeth.” (69)

그는 금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은근히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을 밀고 나아가지 않는다. 한 발 물러선다. “그냥 농담이었네.(I was only speaking in jest.)”(70)

계시의 권위에 직접 도전한 것은 아니지만 불경스러운 일을 저질러 결과적으로 체제 내부에서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은 오히려 부족의 전통을 누구보다 존중하는 오콩코였다. 오콩코는 셋째 아내 오지우고(Ojiugo)를 흠뻑 두들겼다. 오지우고가 옆집에 머리를 땅으러 갔는데 가장의 식사 준비에 맞추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일은 그녀의 의무였다. 게다가 그녀는 아이들도 챙기지 않았다. 오콩코가 화를 낸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하지만 문제는 그날

이 평화의 주간(Week of Peace)의 하루였다는 데 있었다. 다른 두 아내가 질색하며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콩코는 일단 무슨 일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분노가 치솟으면 그의 집중력은 신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잊을 만큼 강력하다. 이 장면의 오콩코는 무엇에 홀린 듯하다.

여신의 사제 에지아니(Eziani)가 그를 질책했다. 신과 조상에 대한 존경은 절대적인 요구이고, 곡식을 심기 전 이 시기에는 이웃에게 심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여신을 섬겨야 풍년의 축복을 주실 것이 아닌가. 너의 행위는 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에지아니는 우무오피아의 도덕률에 위계질서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자네는 큰 악행을 범했네. 자네 처가 잘못을 했지. 그렇지만 자네가 집에 돌아와서 자네 처의 배 위에 셋서방이 올라탄 꼴을 보더라도, 그래도 자네 처를 때리면 큰 악행을 범한 게 되는 법이야.”

“You have committed a great evil... Your wife was at fault, but even if you came into your *obi* and found her lover on top of her, you would still have committed a great evil to beat her.” (30)

오콩코의 둘째 아내가 본디 남의 아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에지아니의 말에는 가시가 박혀 있다. (우직한 오콩코가 이것을 알아차렸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오콩코는 즉각 참회하고 사제가 말하는 대로 암염소 한 마리, 암탉 한 마리, 옷감 한 필, 백 카우리를 바쳤다. “가장 나이든 노인들도 이런 경우는 가물가물한 옛날의 한두 건을 기억할 뿐이다.(Even the oldest men could only remember one or two other occasions somewhere in the dim past.)”(31) 오콩코의 성격이 남달리 독특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체제 내부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그것을 표면화시켜 행동으로 옮긴 사례가 매우 희귀했다는 사실을 노인들의 기억을 빌어 확인할 수 있다.

우무오피아가 이상향이라면 ‘오콩코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즉각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오콩코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다. (오콩코의 첫 부인, 은오예의 어머니도 이름이 없다.) 오콩코의 어머니는 그 흔적이 희미하다. 그녀

는 소설의 3장, 9장, 14장에서 세 번 언급된다. 첫 번째 언급되는 어머니는 오콩코의 기억 속에 등장하는 부양가족의 하나일 뿐이다. 오콩코와 어머니 사이에 교감이 전혀 없다. 남편이 먼저 먹지 않으면 아내가 먹을 수 없다는 관습 때문에 오콩코는 게으른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명의 누이의 호구를 책임지면서 재산을 모았다. 두 번째는 “모기와 귀” 이야기를 들려준 어머니이다. 오콩코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여자들이 이야기가 다 그렇듯 바보 같다(as silly as all women’s stories)”(75)고 일축한다. 세 번째는 추방을 당하여 외가가 있는 음반타(Mbanta)로 이주했을 때 외삼촌이 기억하는 오콩코의 어머니이다.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녀는 친정 마을에 묻히기 위하여 돌아왔고, 그때 오콩코는 아직 소년이었다. 소설을 전체로 조감하면 “오콩코 특유의 여성혐오와 신경질적인 남성우월주의자의 성격(Okonkwo’s particular brand of misogyny and neurotic masculinist personality)”(Jeyifo 848)이 곳곳에서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오콩코는 아내 셋의 여성성을 끊임없이 억압한다. 그리고 아내의 수는 다섯으로 늘어난다. 여성성이 유약함과 우유부단함으로 취급되는 우무오피아의 체계 속에서 대지의 신 아니(Ani)가 여성이고 그 사제 예지아니(Ezeani)가 남성이라는 것은 상보적인 틀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배치한 상징적 질서를 대변할 뿐이다. 치엘로(Chielo)와 같은 엄청난 권위와 예지력을 소유한 여성의 존재 역시 전통 사회의 성역할 분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민족주의 반식민 대항담론(nationalist anti-colonial counter-discourse)”이 침묵을 강요하는 서구의 담론에 맞서 목소리를 낸 것처럼 또 다른 의미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남성의 담론에 저항하는 아프리카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Jeyifo 852)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독립을 지향하는 한 식민지의 모든 저항은 종류를 불문하고 용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립후(post-independence)의 정세는 반드시 저항의 종류와 효용을 둘러싸고 독립 이전에 비하여 결코 치열함이 부족하지 않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무분별한 용납의 연장선상에서 식민 이전의 아프리카를 이상화하는 경향은 식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사악하고 우리는 유약했을지언정 선량했다는 이분법은 그들이 오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허상을 만들어낸다. 아프리카 문학의 집단적 속성을 개별 작품에 투영하여 추상화하

는 아래의 논리도 마찬가지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근대 아프리카 문학은 매우 사회적이다. 이 문학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문학과 다르다. 소잉카의 『해설자들』, 응구기의 『피의 꽃잎』, 그리고 아체베의 『사바나의 개미탑』에서 성격구현과 사회 분석을 채우는 것은 이러한 공동사회의 정신이다. 이 소설의 각각에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강조된다. 다른 인물들을 압도하는 하나의 주인공이 없다. [중략] 마찬가지로 아체베의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와 소잉카의 『죽음과 왕의 마부』에서,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적 관습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구의 침입자들과 투쟁하는 주인공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근대 아프리카 문학에서 사회에 대한 초점 맞추기와 그에 따르는 사회 비평은 아프리카의 전통 속에 있다.

Modern African literature is very socialized. This literature is different from that which focuses on the individual. It is this communal spirit which informs the characterization and social analysis in Soyinka's *Interpreters*, Ngugi's *Petals of Blood*, and Achebe's *Anthills of the Savannah*. In each of these novels a group, rather than an individual, is emphasized. There is no single protagonist that overwhelms other characters..... Similarly in Achebe's *Things Fall Apart* and Soyinka's *Death and the King's Horseman*, the community can be said to be a protagonist struggling against Western intruders to maintain its cultural practices. The focus on society with its attendant social criticism in modern African literature is in the African tradition. (Ojaide 45)

이러한 논리의 끝에 “공동체의 안녕을 위하여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the individual can be sacrificed for the well-being of the community)”(Ojaide 48)는 잔혹한 주장이 등장한다. 개인을 희생시켜 집단의 안위를 유지하려는 습속이 아프리카 문화의 진수이고 아프리카 문학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진단은 대단히 불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개인을 집단에 복속시키려는 이러한 경향이, 식민자들의 유럽이 식민지 쟁탈전의 마지막에 이르러 전체주의에 경도되었던, 오류를 흉내 내어 반복할 징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는 오콩코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인물들의 상호관계를 그물처럼 엮어 낸다. 그물의 당김줄처럼 소설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과 관계

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오콩코는 주인공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의 출판본은 3부로 나뉘어 있다. 오콩코의 행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하면 1부는 입신양명, 2부는 유배, 3부는 귀향과 자살이다. 1부에는 오콩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원자가 있다.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마지막 타이틀 하나만을 남겨 놓은 마을의 유력자 은와키비에(Nwakibie)는 오콩코의 성실함과 용기를 믿고 선뜻 800개의 씨앗(seed-yams)을 빌려 주었다. 2부의 후원자는 유배를 당하여 실의에 빠진 오콩코를 위로, 훈계, 지원하는 외삼촌 우첸두(Uchendu)이다. 3부에는 후원자가 아니라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역 관무관(District Commissioner)이 있다. 한편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괴롭히는 인물로 게으르고 무능한 아버지 우노카(Unoka)와 유약한 아들 은오예가 있다. 손자 은오예는 할아버지의 기질을 물려 받았다. 이에 비하여 둘째 아내 에쿠에피(Ekwefi)와 그녀에게서 얻은 딸 에진마(Ezinma)는 오콩코를 이해하는 유일한 인물들이다. 에쿠에피는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여성이고, 에진마는 가장 풍부한 이해력을 가진 여성이다. 오콩코는 언제나 에진마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되뇌는다.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실한 친구 오비에리카(Obierika)가 있다.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에서 오콩코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 몇몇 인물들을 지워버리면 소설이 아니라 민속지학과 다름없는 기록만 남게 될 것이다.

“오콩코의 세 아내 가운데 문을 쿵쿵 두드릴 배짱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 에쿠에피다.(Of his three wives Ekwefi was the only one who would have the audacity to bang on his door.)”(Achebe 76) 열다섯 시절 그녀는 씨름을 하는 오콩코의 모습에 반했다. 그렇지만 가난한 오콩코에게는 신부를 살 돈(brid-price)이 없었다.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그녀는 몇 년 만에 도망쳐 오콩코에게 왔다. 그녀가 한 때 마을 최고의 미녀였다는 사실은 몸값이 작지 않았을 것임을 암시한다. 전남편에게 오콩코가 얼마를 되갚았는지 소설에는 기록이 없다. 불행하게도 아홉 아이를 유아기에 잃어버린 그녀는 마지막 아이 에진마에게 갖은 정성을 기울인다. 에진마는 에쿠에피를 이름으로 부르는 당돌한 아이였다. 한편 에진마가 성장함에 따라 에쿠에피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에진마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오콩코가 함정에 빠져 관무관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에진마는

28일의 실행을 채 마치지 못하고 본가에 돌아와 사정을 알아본다. 이 장면에서 그녀의 판단력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우무오피아의 남자들이 어떻게 할 작정인지 물어보려고 오비에리카를 찾아갔다. 그렇지만 오비에리카는 아침부터 집을 비웠다. 그의 아내들은 그가 은밀한 회합에 갔다고 믿고 있었다. 에진마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을 알고 안도했다.

As soon as she got home she went to Obierika to ask what the men of Umuofia were going to do about it. But Obierika had not been home since morning. His wives thought he had gone to a secret meeting. Ezinma was satisfied that something was being done. (197)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의 등장인물 가운데 단 한 번 언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는 것에 비하면 에쿠에피와 에진마는 개성을 충분히 갖춘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격은 오콩코와의 관계 속에서만 특성을 유지한다.

IV

내부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그 소설은 자격 미달이다. 마치 연착한 기차에 올라탄 승객처럼 독자는 그런 소설을 고깝게 바라본다. 전 세계의 독자들이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를 계속 읽고 더 자주 읽는 이유는 소설로서의 문학적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콩코가 비극적 주인공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도 이 소설의 큰 미덕 가운데 하나인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비평가들은 비극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는 일반인의 습관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몰락이나 사망이 누군가를 비극적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가치의 손상 또는 변화가 시류이고 추세라서 어쩔 수 없다는 동시대의 타협을 완강히 거부하는 불굴의 용기가 그를 비극적 주인공으로 만

드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비극적인가? 서구의 지성사가 오랜 세월을 걸쳐 지속적으로 사색과 비평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정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어도 성실성의 원칙에 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극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극을 보고, 읽고, 즐긴다. 엄밀한 의미에서 비극과 비극적임은 구별된다. 용어의 적용 범위를 문학에 한정하더라도, 전자는 구체적인 희곡 작품이고, 후자는 장르를 넘어서는 어떤 속성을 가리킨다. 비극적임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면 다양한 작품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인식하는 관행의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한다. 비극적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영문학사의 가장 위대한 비극작가가 셰익스피어라는 주장에는 별로 이견이 없다. 1623년에 출판된 셰익스피어 작품집, 통칭 『첫 번째 이절판』(First Folio)이 비극으로 분류한 작품 열 개를 『케임브리지 셰익스피어 안내서』(*The Cambridge Companion to Shakespeare*)가 추정된 작품 성립 연대에 따라 열거하면 『타이투스 앤드러니커스』(*Titus Andronicus*),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 『햄릿』(*Hamlet*), 『오셀로』(*Othello*), 『아테네의 타이먼』(*Timon of Athens*), 『리어왕』(*King Lear*), 『맥베스』(*Macbeth*),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Antony and Cleopatra*),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의 순서가 된다(xix-xx). 이 작품들에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가? 셰익스피어 비극이라고 하나의 범주를 설정할 근거가 있는가? 개별 작품이 비극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만 해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요구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셰익스피어 비극의 포괄적 특징을 기술하는 일은 비극 자체를 정의하는 것만큼이나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다.

비극은 존재하는데 비극성은 모호한 이런 상황의 해결은 철학의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막스 셸러(Max Scheler)가 제시한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비극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셸러는 우선 비극적임을 가치와 슬픔의 두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의 논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극에는 가치의 변화 또는 파괴에 맞서 행동하는 인물의 시련이 있다. 대립하는 가치들이 각각 정당성을 보유하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할 경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둘째, 세계의 구성 자체가 초래하는 불가피성에서 비극의 비장한,

깊이 있는, 슬픔이 나온다. 비극적 사건은 구체적이다. (Scheler 27-34) 이어서 그는 비극적 상황의 모범을 제시한다.

만일 자신이나 상대에게 매우 고도로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다 준 동일한 힘이 자신의 파괴자가 된다면, 특히 이것이 성취의 행위 자체 속에서 일어난다면, 가장 비극적이 될 것이다.

It would be most tragic if the same power which has brought either itself or another object to a very high positive value becomes its destroyer --especially if this takes place in the very act of its achievement. (34)

자유와 결합한 의지가 필연성과 충돌한다거나 과정은 필연적이거나 결과는 예측 불가라는 점도 비극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주로 셸러가 말한 가치의 실현을 위한 주인공의 행위가 주인공의 파멸을 가져오는 이중성을 기준으로 비극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셸러가 제시한 기준을 잠정적으로 선택했지만 이것을 직접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에 적용하기 전에, 다분히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셰익스피어의 비극 한 편과 비교하여 비극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는 추상적 논쟁에 빠질 위험에 대한 예방책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와 가장 흡사한 것이, 필자의 소견으로는, 『맥베스』이다. 만일 오콩코와 맥베스가 유사한 성격적 특성과 행동의 양식을 보여준다면, 오콩코의 죽음에 비극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탈이 없을 것이다.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비견할만한 자질이 이 소설에서 발견된다면, 지리적 거리와 장르의 차이를 넘어, 양자가 인간의 보편적 심성에 호소하는 미덕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서구적 이분법은 물론 서구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순수주의와도 거리를 두고 두 작품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왕의 손길(at his touch)”(*Macbeth* 4.3.143)이 연주창(scrofula 또는 King's Evil)을 낫게 해 준다고 믿는 영국의 신민들과 가장 사랑하는 딸 에진마의 치료를 무당에게 맡기는 우무오피아의 주민 오콩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셰익스피어 당대의 관객들은, 적어도 그들의 대다수는, 세 마녀와 헤카티(Hecat)의 실

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맥베스가 다시 마녀들을 찾아가 만난 유령들, 차례로 등장한 갑옷을 입은 두상, 피에 젖은 아이, 그리고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왕관을 쓴 아이 역시 같은 존재들이다. 이것들을 맥베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은유로 읽는 것은, 계몽주의의 발현 이후, 합리적 사고가 근대의 관객들에게 초현실적 존재에 대한 의심을 혼욕한 결과이다.

맥베스를 시해와 찬탈의 군주로 만든 것은 그의 야망이었다. 거의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린 “넘치는 야망(Vaulting ambition)”(1.7.27)은 승마에서 빌려온 비유로 읽는 것이 문맥에 맞는다. 말에 올라타는데 건너편으로 떨어질 정도로 너무 높이 뛰는 말이다. 그의 야망을 가장 정확하게 읽은 인물이 맥베스 부인(Lady Macbeth)이다.

당신은 크게 되기를 원하시고,
 야심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보면
 저절로 따라오는 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경건하게 하지, 거짓으로는 못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얻으려 하세요. 위대한 글라즈 영주님,
 당신은 갖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시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원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크답니다.

Thou wouldst be great,
 Art not without ambition, but without
 The illness should attend it. What thou wouldst highly,
 That wouldst thou holily; wouldst not play false,
 And yet wouldst wrongly win. Thou’dst have, great Glamis,
 That which cries, ‘Thus thou must do’, if thou have it;
 And that which rather thou dost fear to do,
 Than wishest should be undone. (1.5.18-25)

서로 교차하는 맥베스의 야망과 두려움은 왕좌에 오르는 원동력과 결국 파멸에 이르는 복원력으로 작용한다. 맥베스의 두려움은 종종 광기로 표출된다. 시간의 흐름이 인과율을 부정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인과율을 복원시킬 것이라

는 사실을 맥베스는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이 맥베스를 비탄과 혼란의 광기 속으로 몰아넣는다. 만찬의 식탁에서 밴쿠오(Banco)의 유령을 보는 장면에서 이르면 맥베스의 광기는 숨길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극이 결말로 다가가면서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된 맥베스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되찾는데 비하여 맥베스를 거의 뜻대로 부리듯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맥베스 부인이 몽유병과 환상에 굴복하고 마는 것은 두 사람의 비극적 인식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두려움(fear)은 야망(ambition)보다 더 자주 무대에 등장한다. 맥베스의 두려움이 행위에 대한 죄책감에서 나왔더라면 결말도 단순했을 것이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환영들이 전하는 예언을 굳게 믿는다. 그러나 처음 세 예언을 거듭 반복하며 확인했던 그의 신중함은 네 번째 등장한 여덟 명의 왕들과 밴쿠오의 유령을 만날 때 홀연히 사라진다. 비록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왕들의 환영은 왕권의 상징인 “이중 보주와 삼중 왕홀”(two-fold balls and treble scepters)(4.1.121)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밴쿠오의 유령은 그것들이 자신의 몫이라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자신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후사가 없는 맥베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 죄책감이 아니라면 무엇이 맥베스의 두려움을 만들었는가?

두려움의 원인을 상상력에서 찾는 시도가 있다. 블룸(Bloom)은 맥베스를 위대한 시인으로 칭송한다. 블룸이 보기에 맥베스의 두려움은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상상력에 대한 두려움이다. 상상이 미래의 실제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어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용기의 화신으로 유명하고 따라서 결코 겁쟁이일리 없는 맥베스는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두려움에 싸여 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이 부분적인 해답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맥베스 부인과 함께 그가 꿈꾸었던 위대함의 꿈만큼이나 그의 압도적인 상상력의 힘과 관련이 있는 공포이다.

Famously a paragon of courage and so no coward, Macbeth nevertheless is in a perpetual state of fear. Of what? Part of the answer seems to be his fear of impotence, a dread related as much to his overwhelming power of imagination as to his shared dream of greatness with Lady Macbeth. (Bloom 530)

미래에 대한 예지가 이중적인 결과를 포함한다는 점이 맥베스의 두려움을 증가시킨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과는 언제나 예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예언은, 신탁의 아이러니가 종종 입증하듯이,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닌 결과를 가져온다. 예언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 없는 선에서 성공을 과시한다. 그러나 블룸이, 나이트(Knight)를 원용하는 샌더즈(Sanders)를 다시 인용하여, 우리가 맥베스에서 발견하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an unknown fear)”(541)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셰익스피어를 반인반신의 존재로 이상화하는 블룸의 지칠 줄 모르는 낭만적 초월 추구가 또다시 찬사를 바칠 기회를 얻은 예이다.

브래들리(Bradley)로 돌아가서 두려움의 정체를 아이러니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브래들리는 셰익스피어가 『맥베스』를 쓰면서 “악을 헤아려 알 수 없음, 다시 말해 악에 끼어들면서도 인간은 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점(the *incalculability of evil*,--that in meddling with it human beings do they know not what)”(325)을 체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것은 인간의 무지가 악행의 원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을 단죄할 근거가 불분명해지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 처음 마녀들을 만날 때 밴쿠오는 그들의 예언을 믿지 않았고 예언의 이중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밴쿠오가 맥베스의 성공을 결눈질하면서 유사한 유혹에 빠져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의 성격이 첫인상과는 달리 강인하지 못함을 암시한다. 전장에서는 맥베스에 못지않은 전사였지만 궁정에서 그는 맥베스에 비하여 왜소한 인물이다. 그의 아들 프리언스(Fleance)의 행적이 극이 끝날 때까지 묘연한 것도 혈통의 유사점을 암시한다. 밴쿠오와 플리언스는, 선량과 잔혹을 불문하고, 맥베스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공포의 크기에 비견할만한 어떤 행동의 결과물도 보여주지 않는다.

맥베스의 경우 악의 깊이에 대한 치명적인 호기심이 악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한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예언과 결합하여 결말의 모습을 미리 훑쳐본다. 맥베스는 예언이 자신의 소망은 물론 예상을 일그러뜨리는 형태로 실현될 것을 알고 있다. 버넘(Birnam) 숲이 움직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가 분노했는가? 직접 확인하려고 나가 보았는가? 아니 오히려 차분해졌다. 예언의 결과는, 나타날 때

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필연코 그렇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미래에 대한, 맥베스가 말하는 시간(time)과 “내일, 또 내일, 또 내일(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5.5.18)에 대한, 그의 인식이 결정적 미완성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두려움은 경험의 바깥에 열린 심연으로 침몰한다. 심연의 깊이가 심연에 대한 공포보다 더 매력적인 상황을 만났다.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는 계속 깊이 빠져든다. 맥베스는 논리와 이성이 지배력을 상실한 세계의 두려움을 체험하고 있다. 맥베스가 근대적 인간의 굴레를 벗어난 사유의 자유와 그에 수반하는 무중력의 공포를 재현하고 있다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다른 주인공들에 비하여 특별히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맥베스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환영처럼 각자의 내면에 숨어있는 맥베스의 판박이를 한 번 발견하게 되면 독자는 결코 그를 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맥베스가 산다. 이에 반하여, 오콩코의 경우에는 오콩코의 부재가 부각된다. 자신의 내면에서 오콩코와 필적할 인물을 발견할 수 없다는 도덕적 부재가, 특히 제삼세계의 독자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독촉장을 내민다. 맥베스는 상상력과 발화력에서 오콩코를 압도한다. 맥베스는 때로 시인처럼 말한다.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점에서 맥베스의 두려움이 오콩코의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콩코의 공포를 해소가 간편한 사소한 감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오류이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숨기고 분노를 표면에 내세운다. 분노와 두려움이 한 쌍으로 움직이는 예는 맥베스와 오콩코 두 사람에게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오콩코를 “으르렁거리는 화염(Roaring Flame)”(153)이라고 불렀다.

옥바(Ogbaa)는 오콩코의 삶의 기저에 “개인적인 성취욕과 경건함(personal achievements and piety)”(126)이 있다고 정리한다. 오콩코의 경건함은 조상들과 신들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 경건함이 결국 그의 성취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일 터이므로 오콩코의 행위 이면에 성취욕이 있다고 단순화해도 차이가 없다. 맥베스의 야망이 왕을 시해하고, 왕좌에 오르고, 그로 인하여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콩코를 몰아간 열정은 그의 성취욕이었다. 그리고 성취욕의 뒷면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의 삶은 하나의 위대한 열정에 지배당했다. 그것은 부족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생명수였다. 거의 성취할 뻔 했는데, 모든 것이 조각났다. 그는 마른 모래밭에서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그는 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His life had been ruled by a great passion--to become one of the lords of the clan. That had been his life-spring. And he had all but achieved it. Then everything had been broken. He had been cast out of his clan like a fish onto a dry, sandy beach, panting. (Achebe 131)

그의 목표는 여러 세대 동안 오직 소수의 남성들만이 도달했던 최고의 타이틀 (title)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정점에 오른 것처럼 보인 시점에서 성취의 목표를 상실한 오콩코의 절망감은 무엇보다도 컸다. 무엇이든 대한 절망인가에 대하여 옥바는 내부의 기준을 제시한다.

오콩코의 죽음은 우무오피아에서 위대한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을 표시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자살은 위대한 집단에 대한 희생이 아니었다. 신들도 동족도 자살을 희생의 한 형태로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은 익보 사회에서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동족과 여신의 기대에 어긋났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콩코는 죽음에 이른다.

Okonkwo's death may have marked the passage of a great era in Umuofia, but his suicide is not a sacrifice to his great society. For neither the gods nor the people would consider suicide a form of sacrifice since suicide is an abomination in Igbo society. Okonkwo's death comes because he realizes that he has failed both the people and their goddess, Ani. (Ogbaa 134)

옥바는 오콩코의 죽음을 개인의 실패로 간주한다. 그가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혼자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희생이 아니라 의미 없는 자살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옥바는 오콩코의 죽음을 아프리카의 문화적 조건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의 중심인물이 이렇게 허무한 자살로 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익보, 나이지리아, 나아가 아프리카 문학의 커다란 성취로 평가를 받는 것은 모순이다. 마을의 어른들과 전사들은 이미 반항할

의지를 잃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발가락도 없는(no toes)” (Achebe 74) 백인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이 안하무인으로 전통을 무시한다. 이런 가운데 오콩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식민지의 현지 고용인을 살해함으로써 그의 결기를 과시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신의 자살로 덮어버린다. 이 죽음의, 자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 보자는 것이 이 글의 최종 목표이다.

무엇이 오콩코를 파멸로 이끌었는가? 개인과 사회가 각각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비평가들은 오콩코 자신의 성격적 결함, 다시 말해 비극적 주인공의 하마르티아(hamartia)와 유사한 결점이 오콩코의 성격에 내재하며 이것이 파국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비평가들은 식민화에 따른 우무 오피아 부족사회의 해체와 문화적 가치의 상실에 책임을 돌린다. 양쪽을 다 거론하는 절충론도 있다. 그 자신이 익보 출신인 은노로멜레(Nnoromele)는 기존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 “익보 사람들의 문화적 신념 체계 속에서 영웅주의의 작동(a function of heroism in the cultural belief systems of the Igbos)” (Nnoromele 147)이 오콩코의 파멸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오콩코의 “개인적 명예 추구(his individual quest for fame and reputation)”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his obligation to his society)” (148)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을 집단에 복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결국 균형의 파괴가 오콩코 개인의 파멸, 즉 자살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취와 헌신으로 오콩코의 행적을 구분한 옥바의 해석과 유사하다. 그러나 오콩코의 경우 그의 욕망과 사회적 요구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의 목표는 부족의 가장 위대한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오콩코는 부족과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그는 과오를 인정하고 즉시 제시된 희생보다 더 넉넉한 예물을 갖추어 속죄한다. 무리한 사회적 요구를 억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은밀히 토로하는 거부감 따위는 그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콩코의 과오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은 다섯 가지 정도이다.

- (1) 화평의 주간(Week of Peace)에 아내를 때렸다.
- (2) 이케메푸나(Ikemefuna)를 죽였다.

- (3) 기독교 개종자들과 함께 있는 아들 은오예를 발견하고 매질했다.
- (4) 에제우두(Ezeudu)의 열여섯 살 난 아들을 오발 사고로 죽였다.
- (5) 백인 감독관의 수하를 죽였다.

두 건의 폭력과 세 건의 살인이다. 첫 번째 사건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긴밀하게 연결된다. 형처럼 따르던 이케메푸나가 아버지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은오예가 결정적으로 오콩코에게서 멀어진다. 오콩코가 부족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키운 이케메푸나를 양자로 볼 수 있을까? 이케메푸나를 죽인 것을 부족의 한 목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옥바는 이것을 동족살해로 인정한다. 그는 “양자 이케메푸나를 살해했을 때 오콩코는 동족을 죽인 것(Okonkwo kills a kinfolk when he murders his adopted son, Ikemefuna)”(129-30)이라고 단정한다. 신탁이 선언하고, 우무오피아가 결정했다. 이 신탁이 누군가의 물음에 대한 응답인가 아니면 스스로 내린 명령인가? 본문은 이런 궁금증에 답하지 않는다. 결정에 삼 년씩이나 소요된 까닭도 밝히지 않는다. 거행일 전날 밤 최연장자인 에제우두(Ogbuefi Ezeudu) 노인이 오콩코를 찾아와 결정을 알렸을 때 오콩코는 놀란다. 상당한 지위에 있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결정이 예외적이었다. 노인은 “이 일에 자네가 끼지 말았으면 좋겠네. 아이가 자네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I want you to have nothing to do with it. He calls you his father.)”(57)라고 충고한다. 실제로 마지막 순간에 이케메푸나는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여요!(My father, they have killed me!)”(61)라고 소리친다. 신탁이 최종 결정에 포함된 일종의 자체 모순을 모른다고 가정하는 것은 순진한 추정이다. 신탁이 형식논리에 따라 호칭만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우무오피아의 신탁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다른 집단에서도 체제 유지에 신경을 쓰는 법률이 종종 잔혹한 판결을 내린다.

노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선 것은 오콩코의 오만이었다. 그러나 이케메푸나가 마지막 순간 오콩코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달려들지 않았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우연이 개입한다. 주목할 것은 오콩코를 사로잡았던 두려움이다.

공포에 취하여, 오콩코는 정글도를 뽑아 아이를 베었다. 그는 남들이 나약하다고 생각할 것이 두려웠다.

Dazed with fear, Okonkwo drew his machete and cut him down. He was afraid of being thought weak. (61)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난다. 우연이 겹쳐 에제우두의 아들이 오발 사고로 죽는다. 총기의 주인이 오콩코였다. 우발적인 사고였다. 오콩코는 가족과 함께 7년 동안 추방당한다. 거의 달성할 뻔했던 목표를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이것이 오콩코를 직접 몰락으로 이끈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다섯 번째 사건이었다.

지역 관무관(District Commissioner)의 집달리를 살해한 것이 우무오피아의 계율 위반에 해당하는가? 관무관의 전령은 오콩코와 같은 종족 출신이었지만 종족을 배신하고 동족을 억압하는 식민지배자들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 전령은 여전히 동족인가? 옥바는 오콩코가 백인의 심부름꾼을 죽인 것이, 그가 흑인이며 또 다른 부족이기는 하나 익보(Igbo)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부족민을 살해한 것과 같다고 판단한다(133-4). 그러나 오콩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신탁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졌다. 오히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이 동족살해의 범죄인가 아닌가라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흑시라도 아바메(Abame)와 같은 일이 자신들에게 벌어지거나 앓을까라는 공포였다. 그들은 수군거렸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Why did he do it?)”(205)

소설의 후반에 이르면 우무오피아의 주민이 아니라 브라운 씨(Mr. Brown), 제임스 스미스 목사(Reverend James Smith), 지역 관무관 등의 백인들이 전면 에 등장한다. 백인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8장이다. 멀리서 들려온 소문에 백인들이 흔적이 묻어 있다. 다음에 백인들이 언급될 때 그것은 벌써 공포를 자아냈다. 15장에서 오비에리카가 오콩코의 외가 음반타(Mbanta)로 찾아와 아바메 마을이 몰살당한 과정을 전해준다. 파종기가 시작되기 전에 쇠말(iron horse), 바꿔 말해 자전거를 타고 온 백인을, 파괴의 전조라는 신탁을 듣고, 죽여 버렸다. 그 백인은 아마도 음바이노(Mbaino)로 가다가 길을 잃었다. 아포(Afo) 장날, 세명의 백인과 그들이 부리는 다수의 원주민이 장터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 사격으로 학살했다. 이 학살극은 이후 우무오피아의 전사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

든다. 오콩코만이 거의 유일하게 전사의 길을 고집한다.

오콩코는 한평생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의 성취욕은 유배와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다. 성취욕은 실패의 두려움을 수반한다. 언제나 두려움에 시달렸던 오콩코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분노를 표면에 내세웠다.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오콩코는 잔혹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전 생애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나약함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것은 약령과 변덕스런 신들과 마법에 대한 두려움, 숲에 대한 두려움, 심술궂고 이빨과 발톱이 빨간 대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깊숙하고 더 친숙했다. 오콩코의 두려움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다.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 자신의 안쪽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듣키지 않을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Perhaps down in his heart Okonkwo was not a cruel man. But his whole life was dominated by fear, the fear of failure and of weakness. It was deeper and more intimate than the fear of evil and capricious gods and of magic, the fear of the forest, and of the forces of nature, malevolent, red in tooth and claw. Okonkwo's fear was greater than these. It was not external but lay deep within himself. It was the fear of himself, lest he should be found to resemble his father. (Achebe 13)

오콩코의 두려움에 대한 강박증은 맥베스의 경우와 흡사하다. “실제로 아버지의 한심한 삶과 수치스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귀신처럼 그를 사로잡았다.(And indeed he was possessed by the fear of his father's contemptible life and shameful death.)”(18) 맥베스의 두려움이 심연을 향하고 있음에 비하여 오콩코의 두려움은 개인적 두려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묘미가 있다. 왕좌에 앉은 맥베스는 왕국의 안녕에 대하여 별로 근심하지 않는다. 반면에 오로지 개인적 성취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오콩코가 부족 전체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오콩코의 부족은 전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터에 모일 때 약 10,000명이 참석하는 작은 국가의 규모를 자랑한다. 오콩코가

유배지에서 상심하여 그 결과 몰락했다더라면 그것은 개인의 불행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7년을 유배지에서 보내는 동안 우무오피아는 오콩코 한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식민화의 문턱을 넘어가 버렸다. 이 기간에 축적된 식민지의 모순이 오콩코의 파국에 더 큰 힘으로 작용한다.

자수성가한 인물(a self-made man)인 오콩코가 결국 이기적인 개인주의자라는 비난(Nnoromele 152)은 그의 기질과 욕망을 혼동한 결과이다. 그들과 그림자가 서로 다른 것처럼 기질과 욕망도 구별된다. 욕망은 대상을 만날 때 비로소 그 모양이 결정되는 지향성을 갖는다. 기질은 지향성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일들은 그의 욕망의 끝을 겨냥하지 않았다. 최고의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는 남자다운 품위를 지켜야 하고 이것은 나약함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와 반발로 표출된다. 오콩코의 기질과 욕망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가 집단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오콩코의 진심은 단 한번도 부족의 전통 질서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한 적이 없다.

집단의 안위를 자신의 안녕과 동일시하는 점에서 오콩코는 독특한 개인이다.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오콩코는 깊은 비탄에 잠겼다. 그것은 그저 개인적인 비탄이 아니었다. 그는 부족을 애통하게 여겼다. 부족이 그의 눈앞에서 조각나고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여인네처럼 말로 다 할 수 없이 말랑말랑하게 되어버린, 우무오피아의 용맹한 전사들을 애통하게 여겼다.

Okonkwo was deeply grieved. And it was not just a personal grief. He mourned for the clan, which he saw breaking up and falling apart, and he mourned for the warlike men of Umuofia, who had so unaccountably become soft like women. (183)

생존과 전통 유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던 우무오피아의 다수는 전자를 선택했다. 선택에 따른 후회가 없지 않았으나 이미 내린 선택이라는 체념이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그러나 오콩코는 그 길을 갈 수 없었다. 그의 삶은

부족의 최고 타이틀을 획득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목표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목표가, 과녁이 사라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부족의 모두에게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는 다시 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정글도를 휘두른다. 백인들은 처음 큰 강(Great River)가에 교역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 재판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다. 그들이 가져온 식민지의 질서는 우무오피아의 전통과 양립할 수 없다. 오콩코의 성취는 전통의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오콩코의 개인적인 욕구가 식민화의 외풍을 만나면서 욕구 충족의 근거인 전통적 질서의 수호를 스스로에게 명령한다.

오콩코가 집회 해산 명령과 함께 파견된 전령들의 앞잡이를 살해한 것은 그의 기질의 발로일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자살로 나아간 것은 그의 비극적 선택이었다. 비록 자신이 꿈꾸었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성취를 향한 매진이 파멸을 불러온 과정은 비극적이라는 수사에 충분히 어울린다. 우무오피아의 전통 안에서 자살은 불경죄에 해당한다. 동족은 그 시체도 만질 수 없다. 오콩코는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체제의 금기를 범하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체현한다.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식민 권력에 대항하고 고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내부의 신념 체계를 부정하는 모순,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려 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모순이 오콩코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전통을 버려야 하는 역설적 상황은 오콩코의 개인의 비극을 부족의 운명과 하나로 묶는다. 탈식민을 고심하는 모든 식민지와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탈식민이 과제로 남아있는 제삼 세계 독립국의 구성원 모두에게서 오콩코가 부딪혔던 비극적 상황이 공통으로 발견된다. 오콩코가 토착문화와 이식문화를 아울러 포용하면서 새로운 독립을 모색하는 탈식민의 길에 근원적인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덕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근거가 여기에 있다.

충실한 친구 오비에리카는 오콩코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오콩코의 크기를 확인한다. 그가 판무관을 향하여 내뿜은 비탄은 오콩코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차라리 자신을 포함한 동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판무관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말이였다.

저 사람은 우무오피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어. 당신이 저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 이제 개처럼 땅에 묻히게 되었다구.

That man was one of the greatest men in Umuofia. You drove him to kill himself and now he will be buried like a dog. (Achebe 208).

오콩코가 백인 판무관이 아니라 그의 수하를 살해한 것은 동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는지도 모른다. “에곤완네의 부드러운 혀바닥이 닿으면 불길도 싸늘한 재가 된다([Egonwanne’s] sweet tongue can change fire into cold ash)”(203)라고 말할 때 그는 이미 우무오피아가 저항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식민지배가 불가피함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판무관에게 위해를 끼침으로써 우무오피아가 아바메의 사례와 같은 절멸에 빠져들기를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V

오콩코가 비극적 주인공인가라는 짧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길을 에둘러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콩코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식민지라는 조건이 강요한 특별한 선택의 결과였다. 맥베스를 몰락으로 이끈 것은 왕권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말콤(Malcolm)과 맥더프(Macduff)였다. 그들의 힘은 스코틀랜드 내부 권력의 한 축에서 나오고, 문학적 표현을 빌리면, 시적 정의(poetic justice)로부터 발현한다. 단순 비교의 틀을 빌려와 오콩코의 몰락이 스미스 목사와 지역 판무관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콩코는 단지 식민주의의 일방적 희생물이 아니라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가운데 저항의 근거가 되는 전통을 스스로 부정하는 아이러니의 대변자이다. 이것이 오콩코를 아프리카의 비극적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다.

아체베의 소설들이 유럽이나 북미보다 아프리카에 더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에 상당한 규모의 토착 출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지적(Innes 199)은 흥미롭다. 그러나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가 해외에서 먼저 출간

되었고 영국에서 일차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아체베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Walder 11)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이지리아 내부의 목소리로 나이지리아의 역사를 알린 아체베의 소설이 서구 소설의 전통을 빌려옴으로써 내부의 목소리에 더 큰 울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외부의 애청자가 소설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 아프리카 소설에서, 『율리시즈』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를 오독하는 자로서 국외자의 역할은 진정한 독자들로 하여금 영국 관리들에게 할당된 구조적 오독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도록 고무시키는 기능을 한다.

In these African novels, as in *Ulysses*, the role of the outsider as a misreader of the culture also functions to encourage the actual readers to disengage themselves from the constructed misreading allocated to the English administrators. (Innes 205)

이렇게 안과 밖이, 토착문화와 이식문화가, 길항작용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프리카 문화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체베의 소설에서 외래적인 요소가 발견된다고 해도 그것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익보 공동체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폄하하는 것은 아체베의 소설을 심각하게 오독하는 일이다.

아체베가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를 기록하면서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서구 문학의 문학적 장치들을 활용했다고 해도 그것을 탈식민주의의 대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치부하거나 새로운 식민화의 과정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착오이다. 이 소설은 아프리카 내부로부터의 육성을 기록하면서 그 육성이 서구인의 귀에도 들리기를 기대하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대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유럽의 산물이므로 완전히 새로운 글쓰기의 양식을 찾아야 한다는 소박한 순수주의보다는 ‘되받아 쓰기’의 전략이 훨씬 유용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소설의 제목 자체가 예이츠 시의 한 구절을 빌려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넓어지는 나선 속을 돌고 돌면서
 매는 매사냥꾼을 듣지 못한다.
 모두 산산이 부서진다. 중심이 견디지 못한다.
 다만 무질서가 온 세상에 펼쳐진다.
 피에 젖은 조수가 밀려온다. 도처에서
 순수의 의식이 익사한다.
 가장 선한 자들은 모든 확신을 상실하였는데
 가장 악한 자들만이 열정적인 격정으로 가득하구나.

Turning and turning in the widening gyre
 The falcon cannot hear the falconer;
 Things fall apart; the centre cannot hold;
 Mere anarchy is loosed upon the world,
 The blood-dimmed tide is loosed, and everywhere
 The ceremony of innocence is drowned;
 The best lack all conviction, while the worst
 Are full of passionate intensity. (Yeats, 210)

예이츠가 기대했던 또 다른 재림과 아체베가 소망했던 새로운 아프리카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아체베가 유럽의 변방에서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서는 아일랜드의 독립과 아일랜드 문학의 성립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예이츠를 인용하는 것은 나이지리아의 탈식민을 진지하게 탐구하였던 그 자신의 목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탈식민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아도 좋을 것이다.

Works Cited

- Achebe, Chinua. *Things Fall Apart*. New York: Anchor Books, 1994. Print.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rint.
 Bloom, Harold. *Shakespeare: The Invention of the Human*. New York: Riverhead Books, 1998. Print.
 Bohannon, Laura. "Shakespeare in the Bush." *Natural History* 75 (August-September 1966):

28-33. Print.

- Bradley, A. C. *Shakespearean Tragedy: Lectures on Hamlet, Othello, King Lear, Macbeth*. London: Macmillan, 1974. Print.
- De Grazia, Margreta, and Stanley Wells,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rint.
- Eagleton, Terry. "Nationalism: Irony and Commitment."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Intro. Seamus Dean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23-39. Print.
- Innes, Catherine Lynette.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Postcolonial Literatures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rint.
- Jeyifo, Biodun. "Okonkwo and His Mother: *Things Fall Apart* and Issues of Gender in the Constitution of African Postcolonial Discourse." *Callaloo* 16.4 (Autumn, 1993): 847-858. Print.
- Nnoromele, Patrick C. "The Plight of A Hero in Achebe's *Things Fall Apart*." *College Literature* 27.2 (Spring 2000): 146-156. Print.
- Ogbaa, Kalu. "A Cultural Note on Okonkwo's Suicide." *Kunapipi* 3.2 (1981): 126-134. Print.
- Ojaide, Tanur. "Modern African Literature and Cultural Identity." *African Studies Review* 35.3 (Dec., 1992): 43-57. Print.
- Said, Edwar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9. Print.
- Scheler, Max. "On the Tragic." Tr. Bernard Stambler. *Tragedy: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Laurence Michel and Richard B. Sewall. Eaglewoodcliffs: Prentice Hall, 1963. 27-44. Print.
- Shakespeare, William. *Macbeth*. Ed. Sandra Clark and Pamela Mason. London: Bloomsbury Arden Shakespeare, 2015. Print.
- Walde, Dennis. *Post-Colonial Literatures in English: History, Language, Theory*. Oxford: Balckwell, 1998. Print.
- Yeats, William Butler.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London: MacMillan, 1961. Print.

정철성 (전주대학교/교수)

주소: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스타센터 321호

이메일: csjuhng@hanmail.net

논문접수일: 2018. 12. 30. / 심사완료일: 2019. 01. 31. / 게재확정일: 2019. 02. 07.